

Silhouette의 變遷에 關한 考察

— 女子衣服을 中心으로 —

이 순 흥

<目 次>	
I. 序 論	3) Gothic
II. 실루엣의 概觀	3. 近世의 服飾
1. 실루엣의 定義	1) Renaissance
2. 실루엣의 필요條件	2) Baroque
3. 材質에 의한 실루엣	3) Rococo
4. 실루엣의 種類	4. 近代의 服飾
III. 服飾變遷의 要因	1) 프랑스 革命時代
IV. 실루엣의 變遷	2) Empire時代
1. 古代의 服飾	3) Romantic style時代
1) Egypt	4) Crinoline style時代
2) Aegae	5) 19세기 후반
3) Greece	5. 現代의 服飾
4) Rome	V. 結 論
2. 中世의 服飾	• 參考文獻
1) Byzantine	• Abstract
2) Romanesque	• 부 록

I. 序 論

의상의 새로운 감각은 실루엣(Silhouette)에 지배된다. 시대감각은 실루엣에 민감히 반영되고 실루엣을 통해 시대의 변천을 알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실루엣의 변화중에서도 스커트(skirt)의 길이가 길다든가 짧다. 또는 넓다든가 좁다.

또는 물결친다든가, 스트레이트(straight)하다든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스커트만이 아니라 코트(coat)나 드레스(dress)도 마찬가지다.¹⁾

현재의 실루엣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금년의 특색은 무엇인지, 어떠한 움직임으로 오늘날

에 이르렀는지 등등을 공부하는 것은 뜻깊은 것이다.

실루엣은 고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렇다면 실루엣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다시 말하면 복식사적인 면에서 그 시대를 대표할만한 의상의 실루엣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복식 문화사란 무엇인가?

복식문화사란 다채로운 변화를 가진 의복에 관한 역사이다. 복식문화는 어떤 문화보다도 더욱 인간과 신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文化의 一面으로서 男女老少 階級을 물론하고 잠시라도 우리는 무관심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복식문화는 그 나라가 위치한 자연적 환경의 조건과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요인에 따라서 그 복식문화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대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

1) 杉野芳子; 服飾 디자인; 東京; 鎌倉書房 1974. p. 49

의 교양 정도와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 그가 입는 복식의 수준도 좌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식은 文化, 즉 文學 彫刻작품등 모든 예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時代의 생활양식과도 관계깊은 것이다. 이러한 복식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무수히 변천해 왔고, 또 무궁히 변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복식의 변천을 어떤 과정으로 발달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것이라 사려되어 본 논문을 착수한다.

하지만 복식이라 하면 男女, 계급, 기능 등에 따라 디자인, 질감, 색채, 구성법, 장신구, 신발, 머리장식 등 광범위하므로 이것을 전부 한정된 시간에 다루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인은 외곽선 즉, Silhouette에 한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Silhouette에 있어서도 부인의 의상으로서 한정하여 그 시대의 代表的인 것 하나씩을 선정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시대적 구분은 고대로부터 중세, 근세, 근대, 현대까지 힘껏 살펴 그 Silhouette을 시대순으로 나열해 보겠다.

연구방법은 Silhouette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복식사적인 고찰을 여러 문헌을 토대로 하여 연구 검토하였다.

II. 실루엣의 概觀

1. 실루엣 (Silhouette)의 定義

服飾은 하나의 表現예술인 동시에 그 時代象의 反映이며, 民族的 感情의 발로이다. 그래서 그 構成된 모든 부분들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他部分과 상호관계를 가지고 成立되고 있다.

그런 意味에서 볼 때 服飾은 分明히 一個의 有機的 統一體이며 부분과 부분의 단순한 物理的 結合體가 아니다. 表現型의 如何를 막론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總合이어야 한다는 것이 要求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이 服飾에만 限하지 않고 人間과 衣服과 裝飾이 모두 합하여 生活하는 裝身體로서 파악되었을 때 비로서 意匠의 眞價를 맛볼 수 있다.

그런데 服裝에서는 이러한 총합된 부분 중에서 着裝姿態에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루엣(Silhouette)이다.

물체를 공간에서 독립시켜 존재를 뚜렷하게 하는 最初의 外形線은 그 形을 代表하는 가장 確實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服裝의 실루엣은 服裝 그 自體의 것인 同時에 특징을 가장 端的으로 나타내는 代表的 기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服裝을 創造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것이다.

服裝의 실루엣이란 服裝의 外形線 즉, 服裝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服裝의 表面線과 外界와의 접촉면을 나타내는 面을 실루엣이라 한다.

그런데 실루엣속에 裝飾되어 있는 여러 가지 細部裝飾(detail)으로 말미암아 눈길이 分散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때로는 실루엣을 나타낼 때 윤곽선 내부를 까맣게 칠해 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실루엣이라 하여 언제든지 內部를 까맣게 칠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內部의 여러 가지 디테일이 어떻게 그 전체적인 실루엣과 調和를 이루어 나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실루엣 內부에 디테일(detail)을 같이 그리는 편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실루엣은 內부의 構成線이나 裝飾線의 有機的 支持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무시하여 버리고는 外形이 成立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선이나 장식선은 어디까지나 手段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外形 自體에 奉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服裝의 外形은 우선 특성을 갖는고로 流行의 歷史는 一面 실루엣의 歷史라고도 할 수 있으며 同時에 실루엣은 流行이나 스타일(Style)의 代名詞처럼 되고 있다.²⁾

2. 실루엣 (Silhouette)의 필요조건

모든 예술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다양함을 지닌 통일성 또는 통일성속에 다양함의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실루엣은 이 법칙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잘 균형 잡혔을 때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2) 劉頌玉, 服飾意匠學 修學社 1975. pp. 53~55

선과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통일성은 우리가 형태를 모순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양성은 우리가 그것을 윤곽으로 부터 다양하게 고양시키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훌륭한 실루엣은 몸의 구조와 관련지어져야 한다. 그것은 몸의 관철의 요소들에 강조점을 둔다. 그것은 훌륭한 요소를 강조시키고 결점을 감출 것이다. 그것은 억제와 운동력을 지니며 아름다운 의상은 여성의 모든 선을 단번에 드러내지도 않으며 중세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외곽선을 덮어 버리지도 않는다. 오랜 과거시대 동안은 치마속에 버팀살(杵)을 옷속에 넣는 심, 가슴옷 등을 확장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나 소위 이러한 개량들은 아무런 아름다움도 산출하지 못하며 단지 우아함과 매력이 없는 파손되고 각이 진 실루엣을 만들 뿐이다. 아름다운 옷은 해부적 구조의 어떤 부분들은 드러내고 반면에 다른 부분은 우아한 주름이나 풍부함으로 미묘하게 감출 것이다.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있으며 입는 사람은 그녀의 옷과 아름답게 융합될 것이다.

또한 훌륭한 실루엣은 그 자체 안에 흥미있는 외곽선을 지닌 각각의 부분들로 구성된다. 그것은 세밀함 속에 다양함을 지닌다. 아마 소매가 중요성을 띠거나 모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과적인 윤곽은 명확히 잘라지고 개체성을 띠거나 그 자체의 어떤 style을 만들어 주는 명확성을 지닐 것이다.

실루엣은 시대정신이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성격을 같이 하고 반영해야 한다.

실루엣이 다양함을 지닌 통일성의 법칙을 준수했는가에 따라 평가한 것처럼 선과 형태와 공간도 그렇게 평가해야 한다. Designer는 통일 속에 다양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복 가운데 이런 종류의 발명성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 속에서 그것을 설명할 것이다.

예술세계에 또 다른 기본적 개념은 형태와 기능의 조화에 대한 것을 숙고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외적인 형태 뿐 아니라 본래의 특징이 단순히 유용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작의 전체 목적과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의 연구에 응용시키면 가장 훌륭한 의상은 사람, 시간, 장소에 적당하게 될 것이다.³⁾

의복은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입는 사람에게 만족한 감정을 주는 것은 디자인의 때와 취미에 올바른 결합이다. 심미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옷들도 있다.

3. 재질에 의한 실루엣

옷의 실루엣(Silhouette)은 材質(옷감)에 따라 묘출한 것이다.

실루엣(Silhouette)과 재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옷의 실루엣은 바꾸어 말하면 재질의 실루엣(Silhouette)이다.

材質의 성격은 실로 다양각색이고 많은 것이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얇은 것과 두꺼운 것 부드러운 것과 뽀뽀한 것 등과 같이 성격의 차이가 실루엣에서도 나타난다. 무겁고 바탕이 두꺼운 재질을 부드러운 재질과 비교하면 무겁고 두꺼운 재질이 그리는 선은 강하고 무거운 반면 부드러운 재질은 몸에 친숙해진 선이 되어 얇전하고 드레시(dressy)한 실루엣을 그린다. 이처럼 재질이 가지는 성격은 실루엣의 성격과 공통되는 것이다.

옷은 또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다. 실루엣은 형태나 재질외에 옷의 개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개성에는 젊음과 경쾌함, 건강함, 스포오티함, 엘레간트등 신선함, 낡음 등 옷의 표정도 무수히 많다.

젊음이 넘치는 실루엣에서 싱싱하고 스포오티하며 동시에 가능적이고 지성적인 면을 볼 수 있다.

평범한 실루엣은 Basic dress에 가까운 실루엣이며 누구든지 안심하고 입을 수 있는 착실하고 평범함으로 연령을 초월하여 무난히 입을 수 있다.

식크한 실루엣은 한마디로 고상한 표정이다. 부드럽고 침착성이 있으며 연령적으로는 싱싱하지만 소녀는 아니다.

3) Grace margaret morton; *The Arts of Costume and Personal Apper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6

아와 같이 실루엣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실루엣이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고 때로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을 할 때는 인체의 실루엣과 옷의 실루엣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⁴⁾

4. 실루엣의 種類

1) Boxy Silhouette

사각의 상자 모양의 느낌이 드는 실루엣이고 Box Coat, tight skirt 등이 만들어 내는 실루엣이다. 유행과는 그다지 관계없이 잘 이용된다. 두꺼운 棉織이나 두꺼운 모직 등으로 만들어지는 대중적인 것이다.

2) Column Silhouette

丹柱, 丹筒을 연상하는 실루엣이며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 착 달라붙은 타이트한 스커트나 스웨터를 걸친 때에 생기는 실루엣이다. Boxy Silhouette 보다 타이트하고 밑자락이 넓어지지 않는 선이 특징이다. 이 실루엣은 때로는 실린더(Cylinder Silhouette)이라고도 부른다.

3) Pencil Silhouette

Boxy 실루엣이나 콜럼 실루엣 보다 한층 더 호리호리한 실루엣이다. 몸에 감겨 붙는 것과 같이 호리호리한 경우가 많으나 Waist는 타이트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이것을 Sheath 실루엣이라고도 한다.

4) Triangle Silhouette

삼각형의 느낌이 드는 형태이고 Collar나 Sleeve를 단순하게 간추려 스커트에 충분한 옷감을 사용해서 量感을 주게 한 스타일이다. 스커트 길이를 길게 하면 묵직한 안정감이 있는 침착한 느낌을 만들어 내는 일이 가능하다. 길이를 짧게 하기도 하고 밑자락을 넓히기도 하는 일에 따라서 젊음과 화려한 mood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실루엣으로 이브닝드레스(evening dress)라든가 웨딩드레스(Weddingdress)에도 사용되는 실루엣이다.

5) Inverted triangle silhouette

역삼각형의 느낌을 갖는 실루엣이다. 어깨나 소매에 Volume을 가지게 해서 빠치는 감각을 내고 胴에서 허리에 걸쳐서는 호리호리해 보이고 1837~1838년경부터 전쟁말기에 많이 보이는

실루엣이다. 페탈꽃샤 등의 밑자락을 접히게 주름잡은 Slacks를 입고 위에 굵은 털실의 카디간(Cardigan)이나 잠바 자켓등의 어깨가 각진 것을 착용해도 이 실루엣의 mood를 만드는 것이 된다. 이와같이 위에 量感이 있고 아래가 오그라들어 量感이 없기 때문에 unbalance한 느낌이 들어 불안정한 느낌을 남에게 주지만 취급하는 방법으로서 경쾌한 젊은 mood나 인상적인 mood를 조성할 수 있다.

6) Bell Silhouette

주로 skirt의 형이 취급된 실루엣이다. 은방울 꽃이나 튜우립 꽃을 거꾸로 세운 것과 같은 밑자락이 약간 넓어진 실루엣이고 가슴부분보다도 스커트에 量感을 가지게 하거나 waist부터 허리둘레에 drape를 주기도 해서 충분히 부풀려도 그것이 자연히 밑자락에 내려가기 때문에 장중한 mood를 내고 싶은 wedding dress나 evening dress cocktail dress등에 이용된다.

7) trumpet silhouette

허리는 그다지 부풀지 않고 밑자락을 갑자기 넓히는 형을 trumpet skirt라 하고 밑자락에 키 길이의 Flounce를 달 수도 있다.

8) Barrel Silhouette

통처럼 둥근 감이 있는 형이고 上下가 오그라든 스타일이다. suits나 coat에 형성되는 일이 많고 키가 큰 사람에게 이용되면 아름다운 선을 즐길 수 있다.

9) Oval Silhouette

Barrel 실루엣에 體長의 중심에서 몸 가로에 둥근 감이 증가하면 통보다도 둥근 형이 되기 때문에 Oval Silhouette이라고 부른다. 또 어깨 주변에 둥근 감을 가지게 해서 몸 중심의 둥근 부풀림을 없애면 꼭 자석과 같은 느낌이 된다. 이것이 1956년 가을에 디오르가 발표한 Magne Silhouette이다.

10) Princess Silhouette

waist에는 절개선이 없고 어깨에서 밑자락까지 절개선이 있고 전후의 몸판이 3~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욱이 上體는 tight하고 스커트 부분은 완만하게 넓혀진다. 20세대로 매우 유행하고 1947년대에 밑자락 폭이 넓은 실루엣이 유행되었다. 1969년에는 밑자락 폭은 그다지 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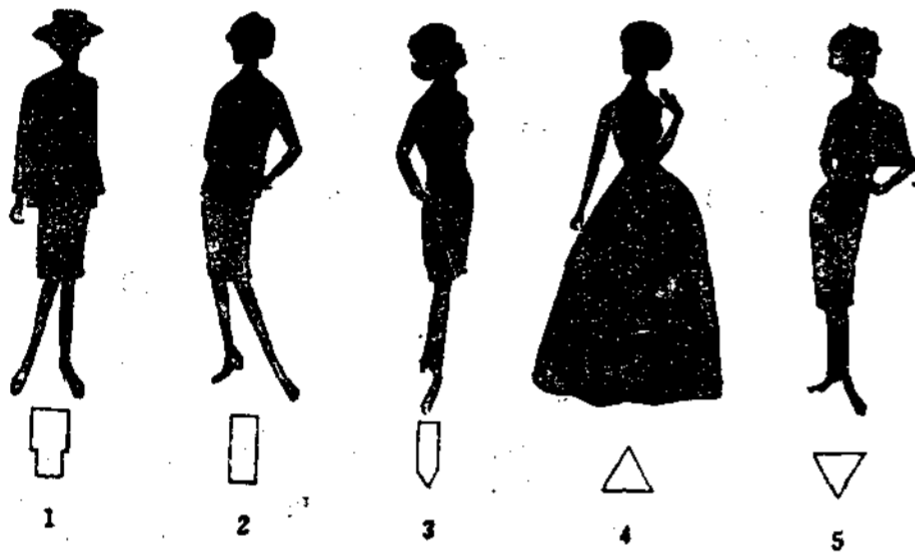
4) 杉野芳子: 전게서 p. 47

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프린세스 실루엣은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또 항상 사용되는 실루엣이다

11) Tent Siloue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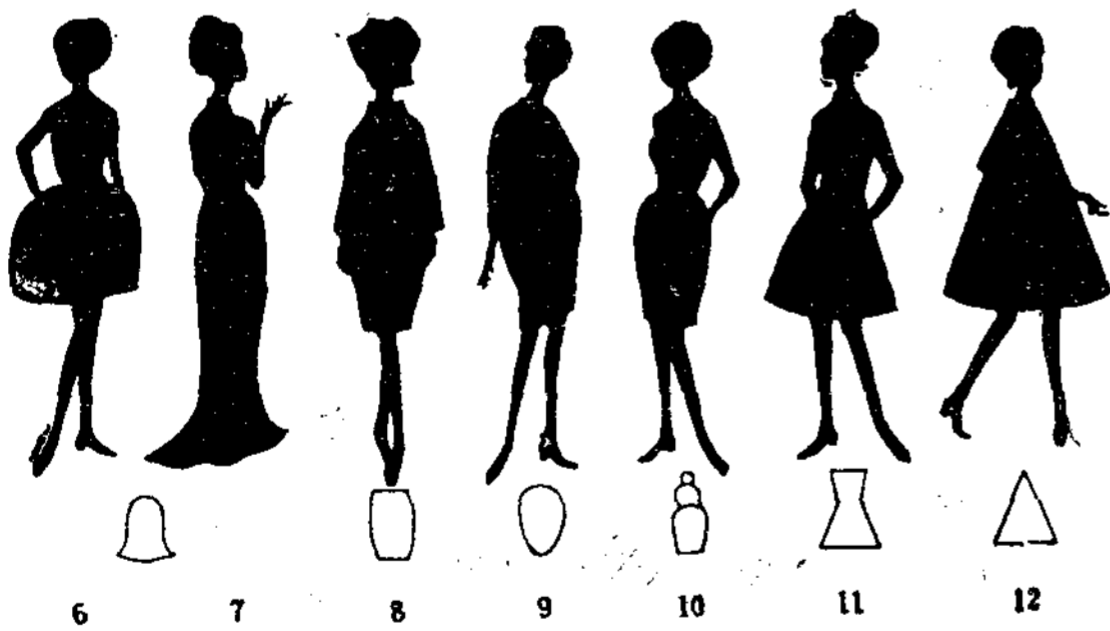
1958년 이브싼 로란이 발표한 삼각형텐트형의 느낌이 드는 실루엣이다. collar나 소매는 산뜻하게 작게 간추리고 어깨에서 부터 밑자락에 걸쳐서 완만하게 바깥쪽으로 퍼져있다. flare 등으로 여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밑자락의 여유분은 많다. 기본선은 트라이 앵글 실루엣과 같으나 이것을 waist에서 가늘게 만들지 않는다.

이상 실루엣의 종류는 木曾山かね著인 “服裝造形のためのデザイン”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림 1-a 실루엣의 종류>

- 1. Boxy silhouette 2. column silhouette
- 3. pencil silhouette 4. Triangle silhouette
- 5. Inverted triangle silhouette



<그림 1-b 실루엣의 종류>

- 6. Beil silhouette 7. trumpet silhouette
- 8. Barrel silhouette 9. Oval silhouette
- 10. Magnet silhouette 11. Princess silhouette
- 12. Tent silhouette

III. 服飾變遷의 要因

服飾意匠의 變遷過程을 살펴보면 복식은 自然環境과 社會環境에 직접적인 關係를 가진 그 時

代의 生活樣式의 表現으로서 그 變遷의 要因은 매우 복잡하다.

生活樣式은 自然적 조건과 社會적 조건에 의해서 影響받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自然적 조건을 가진 같은 나라라도 시대에 따라 社會的 조건이 다르면 그것에 의하여 생활양식이 변하고 따라서 衣裳도 변하게 된다. 自然的 조건으로는 기후, 風土的인 要因이 있고 社會的 조건으로는 宗教, 藝術, 政治, 濟經, 思想, 哲學등의 광범위한 文化的 要因이 있다.⁵⁾

먼저 自然環境의 影響으로는 어느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寒暑乾濕의 기후조건과 水陸高低 등의 地理的 특징에 따라서 被服의 지역적으로 種別이 생겨서 각 지방이나 국가마다 고유한 지역 복이 생기게 된다. 被服形態의 成立으로 볼 때 기후형에 의거한 피복의 種別을 보면 추운지방의 의복은 體形型으로서 四肢를 감싸는 형이라 할 수 있고 열대 지방의 의복은 腰帶型, 垂布型, 皮膚를 노출시키는 형이다. 沙漠性 건조지방은 여유있는 寬衣로 體形型이며 全身을 둘러싸는 형이다. 多雨性 기후로 습기가 많은 지방은 開放的인 體形型으로 四肢를 노출시키는 형이다. 夏乾 多濕한 지방은 여름에는 垂布型이고 겨울에는 體形型이다.

夏濕 冬乾지방은 여름에는 全開型인 寬頭衣이고 겨울에는 體形型으로 四肢를 감싸는 형이다. 이와 같이 기후順應에 의한 服裝의 定形이 그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變遷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社會環境은 自然環境보다 훨씬 복잡하고 多樣하여 服裝에 미치는 影響도 매우 크다. 社會環境은 宗教, 藝術, 政治, 經濟, 思想, 哲學등 여러 가지 社會事象의 影響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要因들은 그 時代의 생활양식이나 文化를 특징지우며 나아가서는 服裝을 特徵지운다.

그 時代의 公예상(Technological)의 발전 수준과 그 시대의 일반 여성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이상적 여성이나 여신과의 동일성이다. 즉, 사람들의 문화적 양식을 반영하면서 정숙함을 위해서나 매력을 더하기 위해서 추위에서 보호하거나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위해 몸에 옷을 입히는 목적으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5) 劉頌玉; 전계서 p.15

의상에 적용하는 방법의 발달에 관련되고 의존적이다.

생존만을 위한 단계를 지나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마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의복발전에 강한 동기가 되기 시작했고 공업기술(Technology)은 유행창조에 두번째로 큰 영향이 되었다.⁶⁾

IV. 실루엣의 變遷

1. 古代의 服飾

1) Egypt

원시 농경민족이 서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 북부에 걸쳐서의 일대에 이주하여 문화를 발전시켰던 이집트가 역사시대로 들어간 것은 기원전 3200년경이라고 전해지며⁷⁾ 오리엔트 지방중 文化 史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집트의 Nile강 유역과 Mesopotamia지방의 Tigris Euphrates兩江의 유역과 India의 Indus江유역 그리고 中國黃河 유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세계 最古의 文化國으로 나일강의 언덕에 文化를 발전시켰다.

그 시대 구분은 初期王朝時代, 古帝國時代, 中帝國時代, 新帝國時代, 末期王朝時代로 구분되며 古帝國時代에는 중앙집권이 실현되어 거대한 피라밋의 완성을 보았다. 中帝國時代에는 외국과의 교역이 발달되었으나 16王朝 무렵에는 셈 계의 유목민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집트가 신제국을 건설하게 되어 文化를 한층 비약시켜 복식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최성기의 발전과는 비교가 안된다. 그후 타국과의 교섭이 격렬함은 더욱 심해졌다.

그후 흥망성쇠의 고파를 겪는 동안은 복식 문화사의 과도이기도 하다. 복식문화 발달의 원인을 살펴보면 비옥한 토지와 적당한 江河가 있어 관개에 가능하여 농경생활이 발달할 수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高原지대 즉 앓시리아, Elam 등에서는 天水灌溉에 의한 농경이었으므로 이것만으로서 생활유지가 안되어 交易에 종사하므

로 遊牧生活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같은 자연환경의 제약에서 오는 두 생활 양식이 생겼는데 平靜하고 고정적인 양식을 지닌 고대 이집트는 남녀 모두 腰衣 즉, loin cloth로서 裸出的이고 開放的이다. 기다란 직사각형의 옷감으로 단순히 몸을 둘둘 감아 한쪽 어깨에 매어 놓은 것만으로 모든 의복의 구실을 했다.⁸⁾ 그러므로 이 당시의 대표적인 실루엣(Silhouette)을 찾아보면 loin



<그림 2 Egypt cloth를 들 수 있다. 시대> (그림 2)

2) Aegae 海

Greece 이전에 매우 文化가 발달한 Aegae海文明은 거의 1000년이나 이루는 긴 세월을 서서히 성장하고 그 시대구분은 초기 B.C. 3000~2000年, 중기 B.C. 2000~1500年인데 이 기간은 크레타(Creta)가 文明의 中心을 이룬 시대이다. 후기 B.C. 1500~1000年은 Greece반도의 미케네가 文明의 中心이 되어 발달한 시대이다.

이 文化를 번영시킨 인종도 알 수 없으며, 또 이집트나 Mesopotamia와 어떤 관계이었던지도 알 수 없으며 멸망의 원인도 알 수 없다. 다만 발굴된 유품으로 보아 현재 우리들과 심히 공통된 근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이다.⁹⁾

B.C. 1500년 期에 개화한 Creta, micene의 복식은 극히 독특하고 소위 고대복의 通念과는 약간 취미를 다르게 하고 있다. 性別에 관계없이 벌(蜂)처럼 허리를 가늘게 한 옷이다 남자는 腰衣를 입고 여자는 Bust를 들어낸 tight



<그림 3 Aegae 시대>

6) Hele L. Brock 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John wiley & sons, Inc, N,y London sydney 1965, p.57.

7)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古代編 東京 光生館 1958, p.15.

8) Helen L. Brockman; op. cit. p.58.

9) 中田滿雄외 1人; 服裝のうつりかわり 東京 有限會社. 1960, p.12.

한 first형의 上衣에 밑이 퍼진 gradation skirt를 입고 있다. 허리 부분의 前後를 가리는 apron형의 corset는 극히 독자적인 것이고 대체로 외형이 近代性임에 놀라운 것이다.(그림 3)

3) Greece

古代 Greece가 번영한 지역은 주로 발칸반도의 南端과 Aegae海帶이다. 기후가 온화하고 雨量이 적고 건조하며 맑은 하늘과 淸明한 공기를 가진 지역이다. 이 같은 풍토는 고대 그리스 文化와 이것을 키운 정신과 直結되는 것이다.¹⁰⁾ 이와같은 정신을 바탕으로한 Greece의 被服은 부분적인 美보다는 全體의 美를 추구하는데 특색있고 裸體의 美를 아는 그들은 인간이 가진 자연스런 육체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옷을 만들었고 또 피복재료의 자연미를 살릴줄도 알았다.

B.C. 700년대에 Greece의 복장 양식은 단순한 원통형에 몸을 둘러싸는 페프로스(peplos)가 된다. 이 복장은 검소하고 강건한 기품을 중히 여긴 Doric chiton의 별명이다. 큰 사각형의 wool地의 윗부분을 $\frac{1}{5}$ 정도 바깥쪽으로 접고 중앙으로부터 세로로 둘로 접히도록 몸 중심을 앞뒤에서 둘러싸고 양 어깨에서 브로우치로 고정시키고 허리 끈으로 걸어 올리는 것이다.

B.C. 500년대에는 이 오니아인은 東方으로부터 들여온 얇은 麻를 주로 한 우아한 주름이 있는 Ionic chiton을 입게되었다. 양팔은 수평으로 하여 많은 핀으로 고정시켜 커튼처럼 늘어뜨린 후 허리끈을 매거나 등에 X자 모양으로 교차시켜 양소매를 걸어 매는 식으로 한다. 이 둘 모두 겨입는 일도 있으나 대개는 chiton위에 Himation이란 커다란 shawl형의 걸옷을 착용했는데 Himation의 입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그림 4)



<그림 4 Greece시대>

4) Rome

로마는 지중해 중앙부에 취하여 海上進出에 편리하였고 그리스에 비하면 耕地面積도 상당하였고 雨量도 적당하여 처음부터 농업국이었으며 이태리반도를 통일한 뒤 世界帝國을 건설하였다

古代 로마는 그 文化나 文學, 彫刻作品뿐만 아니라 섬기는 神에 이르기까지 高遠한 理想主義에 입각한 Greece의 것을 계승하게 되었다.¹¹⁾ 文化뿐만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Greece복식의 형태 그대로에 단지 명칭만을 로마적으로 바꾸었음에 불과하다. 즉 stolar는 tunic의 로마적인 명칭이고 Greece의 chiton과 같은 뜻이며 palla는 Greece의 Himation과 별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때나 프랑스 혁명 이후 까지도 古典的 氣風을 일으켜 Rome를 상징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美的 감각이나 예술적 창작력은 없었으나 Rome의 服飾은 위엄있고 웅장하며 量感을 주는 것만은 특징적이다. 이것은 지리적 역사적 환경보다 독특한 사회제도의 영향이 크다.

Rome의 男子服은 T자형의 헐렁한 tunica위에 Toga를 착용했고 여자복은 속에 stola를 입고 그 위에 palla를 착용했다. 남자의 tunica는 상류계급은 길이가 길고 하류계급은 길이가 무릎 정도 까지였다.

Rome의 Toga는 그 후 로마서민의 심볼로서 이방인은 입지 못하게 했고 Toga를 입음을 영광의 상징으로 되었고 신분계급에 따라 형태와 장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그림 5)



<그림 5 Rome시대>

2. 中世의 服飾

1) 비잔틴

비잔틴 문화가 세계를 비치는 동안 유럽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대규모의 이동속에서 몇개의

10) 金惠全; “佛蘭西女子服飾에 關한 比較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3호 1976, p.25.

11) 李春熙; 西洋被服史. 서울, 益文社. 1976, p.30.

나라가 생겼다. (東유럽에는 비잔틴,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西유럽에는 불란서, 독인, 이ギリス, 北유럽에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南유럽에는 이태리, 스페인) 이들 나라는 정치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대개는 몇개의 領土의 모임이라는 본질에서 모두 같다. 그리고 국왕, 제후, 직신, 신하라는 계급이 피라미트적인 사회 형태 속에서 세워져 이것이 중세사회의 특색인 바 소위 봉건제도가 발전한 것이다.¹²⁾

중세는 그 발전 단계에 응해서 초기(4~10세기), 중기(11~13세기), 말기(14~15세기)로 구분되나 이 과정은 그대로 寬衣에서 窄衣로의 과도적 이행을 나타내고 있다.

양식으로 말하면 초기 그리스도교시대 및 비잔틴 시대를 경유하여 Romanesque시대, Gothic 시대에 이행함에 따라 점차로 북방계의 窄衣형식으로 안정되어 북방의 미개인이 로마 문명의 흡수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비잔틴은 이미 헬레니즘(Hellenism)적계의 높은 교양과 문화를 몸에 익히고 더 나아가서는 동방의 사라센 문화까지도 흡수하여 중세 유일의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그림 6 Byzantine시대>

동서 문화의 要路에 해당되는 비잔틴은 이미 국제도시이고 그리스도교 문화의 일대 중심지였다. 이리하여 비잔틴의 번영은 그 후 중세 세계가 사실상 동서로 분리되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한편 서방세계는 그 까닭으로 스스로의 보조를 보지하면서 신 문화건설에 노력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고대 로마에 후계자가 된 동로마제국인 Byzantine시대는 4~5C까지 전속했으나 융성기는 5~9C경 까지 이다.

Byzantine문화의 특질은 그리이스적으로 세련

된 우아함에 동방적 신비성을 가미하여 이 두개의 전통이 그리스도교정신을 통하여 Byzantine 궁전을 무대로 개화한 점에 있다. 서양의 것과 는 이질의 독자적인 풍격이 복장상에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시대의 代表的 被服인 아름다운 Dalmaticer는 當時의 벽화나 풍속화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中世에 들어와서 비로서 古代의 衣服을 떠나서 衣服을 떠나서 衣服을 몸의 曲線에 맞게 재단하는 法の 발전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재단법은 공부해야 하는 중세기의 피복으로 전化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洋服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 Dalmaticer外에 pallium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pallar를 Dalamticer위에 입는 것으로 실용성을 떠나 신분이 높음을 表象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부인들에게는 보통 의복과 띠의 관계 같이 Dalmaticer와 pallium은 서로 돋보이게 고려되었다.¹³⁾(그림 6)

2) Romanesque시대

新興民族 후랑크가 세력을 확장하여 西유럽의 大半을 수중에 넣은 11세기에서 12세기 까지를 Romanesque시대라 한다. 로마네스크는 Rome풍이라는 의미인데 로마가 많이 사용한 arch구조를 자유롭게 조립하여 라틴(Latin) 十字型을 보통으로 하는 로마네스크 건축이 된 時代이다.



<그림 7 Romanesque시대> 럽세계에는 一大事變

또한 11·12 세기의 회화나 조각의 양식상의 명칭이기도 하다. 그 시대의 미술은 German人이나 東方人이 갖는 추상적인 장식형식과 古代, Greece, Rome가 가졌던 자연적 인간상과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12세기에 이르러 유

12) 丹野郁; 전계서 p.150.

13) 李春熙; 전계서 p.34.

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종교적 聖戰이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전쟁의 부산물로서 전쟁 목적보다는 東方의 異質的인 文化와 풍속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쟁 의식적인 東方의 아름답고 진귀한 의상이나 옷감을 토산물로 선물하기 위해 가지고 돌아왔다. 그로 인하여 東方風의 流行이 흐르게 되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 衣服은 男女 다같이 쉐즈(chaise)라는 속옷과 부리오(Bliaud)라는 겹옷을 입었다. 이것은 Rome時代의 tunica의 형태와 비슷하나 달라진 것은 자수나 주름이 있고 東方的 요소가 채용되었다는 점이다. 부리오의 소매는 암홀(Arm Hole)이 소매부리보다 좁아 아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겨드랑이나 뒤에서 끈을 매도록 되어 있고 또는 허리에서 떠를 매어 아주 적은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胴자체는 극히 tight하며 몸의 육체 그대로의 실루엣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⁴⁾(그림 7)

3) Gothic시대

Gothic시대는 12세기半경에서 13·4세기경까지를 中心으로 한 시대로서 그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침으로 사로잡혀서 끝난 時代이다. 원래 Gothic이란 Goths풍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未開野蠻의 지역을 떠나 中世의 자랑스러운 예술의 의양식으로서 Rome풍을 버리고 北區式으로 創意工夫된 양식이다.¹⁵⁾ 결국 로마네스크적 상징주의로부터 자연주의적 이상주의에의 이행이고 첨두 아취를 강조한 건축을 위시하여 다른 미술에도 그 특징이 명백하게 표시된다. 염색이나 재단 기술의 발달도 당연히 이것과 平行해서 발달했고 13세기말이 되면서 동방에서 금실로 무늬를 놓은 화려한 비단과 광택이 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비단과 프린트의 벨벳등이 들어와 색채적으로도 광택이



〈그림 8 Gothic시대〉

더해진다. 초기에는 콧도와 술코가 사용되었으나 14세기가 되면서 cotardie와, 우프란드가 나타난다. cotehardie란 “기발한 겹옷”이라는 뜻으로 상체에 꼭끼게 재단한 점에 특색이 있고, houppelande는 헐렁한 가운(gown)형식인 것이 다른 점이다. 코달디는 low neck이고 High waist인 것에 비하여 우프란드는 High neck이나 High waist인 것이 일반적이다.

몸체(胴部)가 tight하고 하체부가 극도로 넓은 것이 특색이고 때때로 밑자락이 풀리게 되어 있다. 소매는 타이트한 경우와 트람펫(trampt)형으로 넓어지는 느슨한 것이 있고 neck line은 낮다. (그림 8)

3. 近世의 服飾

1) Renaissance시대

中世에 들어와서 神의 지시만을 信條로 삼으며 기독교의 금욕적인 敎理에 맹종해 왔고, 宗敎를 지배하던 승려나 귀족의 탄압에 실증을 느끼고 살아오던 시민 계급은 이러한 인습에서 벗어나 좀더 自由로운 인간 자신이 갖는 理性을 찾으며 인간 本然의 生活을 갈망하게 되어 Renaissance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¹⁶⁾

Renaissance라는 것은 “再生”, “復興”이라는 의미이고 문예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다. Renaissance시대는 14세기에서 시작했지만 그 꽃을 피우게 된 시대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이고 더욱 더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로서 그 시대의 中心이 됐다. 이 시대에 피복 문화상에도 중요한 意義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신적 해방과 물질적 비약이라는 공간의 혁명에 의한 Renaissance 특유의 양식이 전 被服史위에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현대 피복과 공통하는 많은 요소가 있다.

이러한 르네상스 운동은 이태리 부터 시작되었고 16세기를 풍미한 주류가 된 style은 스페인에서 그 과제(theme)가 제출되었고 이어서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특수한 과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16세기 후반기에 가서는 Europe 流行의 主流가 되었다. 직물공업의 海外 진출이 높고 경제적으로 유리했던 西歐의 상공업의 중

14) 전계서 pp.35~40.

15) 河鱈實英; 西洋복식미술사, 東京家政敎育社, 1973. p.49.

16) 李春熙; 전계서 p.49.

심지는 이태리였으며 지리적 조건이 좋고 예술적으로 優位를 가진것은 프랑스였다. 그러므로 르네상스문화는 여기를 기반으로 하여 번창하였다. 따라서 프랑스가 西 Europe 복식계의 중심 세력으로 활약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Renaissance의 복식은 부분과 부분의 결구(結構)에 따라 명확한 외형을 그리고 鑄型의 강직성과 건축적인 구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수평과 수직의 합리적 結交에 따르는 統體的인 균형 잡힘과 안정을 추구한 정적이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莊重하고 더욱이 고립적인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이 시대의 의상을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 1510년대에는 이태리식 시대라 하고 1510~1550년대는 독일식 시대라 하며 1550~1620년대는 스페인식 시대라 구분된다. 이태리식의 특색은 옷감에서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양의 명주, 다마스크, 부로케드, 벨벳등이 화려한 문직으로 등장하고 뻗치는 두꺼운 감은 몸체에 붙게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재단이 되든지 또는 넓은 면으로서 사용되든지하였고 또 부분 부분에서 흰 麻地를 내다 보이게한 수법이 생겼다.

결국 의복은 운동을 방해하는 점에서 관철이나 봉합부분을 슬릿트(slit)한 대로 개방하고 끈으로 묶어서 연결하여 그틈으로 옷이 내보이게 했다.

직물공업이 경제 발전의 기반이된 이태리에서는 복식에 관심도 컸고, 우수한 예술가 들이 의장을 풍부한 것으로 재봉하게 했다.

여자옷의 특성은 사각목둘레 (Square Neck line)이나 V형으로 크게 개방하고 waist 상부에서 이음선을 갖는 Robe 형식은 胴衣와 스커트가 하나로 봉합되었지만 이미 재단상 분리하여 몸을 부분마다 형성하려는 근대복의 기본적 구상이 나타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독일식의 의상 특색은 slash와 slit 장식을 살린 환상성에 있으며 초기에는 low neck이고 소매도 넓었지만 이윽고 highneck으로 변하여 작은 주름 카라가 붙게되고 소매도 아담하게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스커트를 넓히는 허리테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애프론이나 플리츠(pleats)에 의해서

약간 부풀음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 스페인식 시대는 대체로 詰物型시대라고 불리는 것처럼 여자는 Farthingale에 의해서 하체부를 과장하는 반면 胴部를 corset로 극단으로 조였다. 이러한 스페인 모드는 당시의 권력과 세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의복의 표면에는 의견적으로 과시하는 보석이나 귀금속이 무수하게 봉합되어 암색의 옷감에 따라 그 빛남이 강조되었다.



〈그림 9 Renaissance시대〉

여자옷의 Farthingale에는 초기에는 종 모양이고 후기에는 도넛형이 있고 전자를 스페인형 후자를 프란스형이라 불렀다. 프란스형 Farthingale이 등장해서 스커트가 북모양이 되는 것은 16세기말부터 17세기 초기에 걸쳐서이고 이것에 따라 胴部는 V자형으로 스커트에 파고 들어가 그것에 이어 받아 라흐(ruff)도 부채모양으로 넓어지고 이윽고 등에 늘어지게 된다. 결국 Renaissance복식의 結着은 이 스페인식에서 볼 수 있다.¹⁷⁾(그림 9)

2) Baroque의 복식

17세기 복장의 양식을 Baroque 양식 이라한다. 바로크란 말은 포르투갈어의 “알맹이 진주”에 유래하고 “기이한”, “괴기한”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으며 전대의 Renaissance와는 상이한 새로운 예술양식을 가리키며 動的인 변화의 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되었다.

르네상스가 명절성을 중히 여기고 지적인 표현에 의한 종적구성을 추구한 것에 대하여 이 17세기의 예술은 끊임없는운동의 지속을 중히 여겨 감각적인 표현에 의한 종적 구성을 추구한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특히 건축에 있어서 현저했다.

17세기의 예술이 바로크라 불리우는 것과 같은 표현을 취한 원인의 하나는 종교개혁운동에 의해서 급격히 성장한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에 대한 카톨릭(catholic)세력 회복의 움직임인 반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그것의 한 예이다.

한편 시민생활도 종교개혁의 안정에 잇따라 궁정 및 귀족계급의 生活의 궁정 그리고 현실

17) 石山彰; 服飾意匠; 東京, 光生館, 1969 p.66.

적 인습적으로 더욱 더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갔다. 또한 통상무역 발달에 의한 해외물자의 移入과 그것에 잇따른 이국 취미의 유행이다.

해외 무역 발달에 의하여 시민경제를 풍부히 하고 건축을 위시하여 衣服, 장식품, 의장에 이르기 까지 현란한 장식 미술적 경향이 강해져 갔다.¹⁸⁾

이 시대의 복장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연결된 통통하게 보이는 외형에 따라서 껴입는 것이나 주름달린 것이 눈에 띄게끔 되었다. 색수가 적고 암색조가 주체인 것은 레이스나 칼라(collar)나 카우스(cuffs)를 살리는 것에 유리하다.

또 전체를 느슨하게 하여 복부에 부푼감을 주고 여유있게 한 하체부에 의해서 중심을 강조한 외형은 이 시기의 양식에 공통된 특징이다.

17세기의 被服을 살펴 보면 오히려 男子服의 활약이 큰 時代이다. 16세기의 男子服은 비교적 일정한 형이었으나 17세기에 와서는 실로 多様하게 변화되어 드디어는 금일의 coat의 定型의 근원을 만들었다는 세기이기도 하다.¹⁹⁾

이 시기의 여자복장은 제 1기는 1635년경 까지 스페인(spain) 세력과 프랑스세력의 교차기이고, 제 2기는 오란다 시민계급의 우세기이고, 제 3기는 루이14세의 즉위에서 1715년에 이르기 까지 프랑스 絶對王朝의 번영기이었다.

제 1기는 16세기와와의 과도기였으므로 前世紀의 영향이 남아있다. 그리하여 여자복에 있어서도 역시 新양식은 나타나지 않고 실루엣은 대체로 前세기의 양식이였다. 胴部는 tight했지만 그 특징으로는 collar와 4분의 3 정도의 소매기장에 cuffs에 아름답게 레이스로 장식하여 붙였던 것이다. 스커트는 거의 마루바닥에 끌릴 정도의 기장으로 적당하게 부풀린 실루엣이 나타났다.

바로크의 特徵은 放膽한 표현을 좋아했으므로 여자복도 부분적으로 남성적인 느낌이 보인다.

제 2期 즉, 17세기中기는 1640년경으로 여자복은 갑자기 경쾌하게 됐다.

그것은 오란다 시민계급이 모드(mode)를 이끌어 가게 됐다. 이 당시는 유럽은 전란중으로 복장제를 이끌어가는 궁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10 Baroque 시대>

허리의 트임새를 조여매고 배 모양의 둥근 목둘레에 시 어깨선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실루엣, 새로이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오란다 시민의 부인의 영향이었다. 더구나 그 시대의 흥미있는 옷은 여자복 보다도 이상하게 변화된 남자복이었다.

제 3期는 루이14세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호화하고 장려함을 좋아하던 시대이다. 그러므로 Waist는 가늘게 보이게 하는데 고심하고 스커트는 앞을 크게 벌려서 그곳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속옷을 보이게하고 뒤로 트인 스커트는 H·P위에 보이게 장식해서 그리하여 그 형을 바르게하기 위하여 Petticoat 밑에 尻堂을 넣어서 부풀게 하였다. 이 尻堂을 Butsle 이라고 한다. 더구나 當代의 여자복식에 관해서 말할 것은 속옷이 사치스럽게 되어 그것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향수가 발달되는 등 머리위에 높은 髮型으로 됐다. 마침내 男子의 "collar"의 유행도 相對되는 것으로 됐다.²⁰⁾(그림 10)

3) Rococo 시대

18세기는 Rococo 時代라고 한다. 복식 문화상에서는 프랑스의 영역이었다. 영국은 오로지 해외로 발전하여 상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문화방면으로는 활동하지 않았고 독일은 30년 전쟁의 피곤으로부터 일어날 수가 없고 이탈리아 에스파니아는 쇠퇴해버려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문화방면에서는 歐州의 주도권을 취한 때이다.

이18C는 프랑스궁전 문화가 가장 화려했을 때였다. 따라서 루이 王朝의 궁정이었던 베르사이유의 mode가 파리에 오고 파리로부터 歐州의 각 도시에 흘러갔을 때이다.

루이 14세는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臣僚귀부인에게는 화려한 복장을 시켜서 맞이하게 했다. 루이 15, 루이 16세의

18) 中田滿雄외 1人; 전계서 p.48.

19) 李春熙; 전계서 p.65.

20) 河鱈實英; 전계서 p.64.

궁정생활은 놀랄 만한 것이고 긴 밤의 향연을 벌리는 것이 헤아릴 수 없고 國勞를 낭비하는 것이 물쓰듯 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²¹⁾



<그림 11-a Rococo시대> <그림 11-b Rococo시대>

이 시대는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전기는 1715년부터 1730년 까지의 시대로 이 시대의 복식은 Baroque와 Rococo양식의 과도기이다. 부인복은 후기 Baroque시대의 너무 의례적인 점이 없어지고 트랜(train)도 없어진 크리노린으로 스커트의 펼침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금속이나 고래수염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패니어(panier)이며 그 위에 콘토오세라 부르고 그 등부분에는 왓트프릿츠(Watteau pleats)가 있는 Robe를 입었다.

중기는 루이15세의 시대(1730~1770)이며, 여자복은 대중의 경우는 17세기중엽의 네덜란드(오란다)식의 험령한 것이고 궁전의 부인복은 side hoop의 시대였다. 이 스타일은 左右만이 많이 넓어지는 hoop로 변한 것이다.

후기는 루이 16세의 시대로(1774~1789) 프랑스 대혁명까지의 시대이며, 복장사상에서는 루이 16세 부인 “마리안토아네트”시대이다. 그는 세계 최초의 Fashion Designer로 명성이 높은 “로즈벨당”(Rose Bertin 1744~1812)을 황실 디자이너로 채용하여 이 두 사람이 만들어 낸 최신형을 입힌 마네킹 인형은 매년 유럽각지에 보내어져 그 Fashion show는 각국의 여자를 매료해 버리고 유럽 유행의 중심이 프랑스가 되어있

<그림 11-c Rococo시대> <그림 11-d Rococo시대>

었다.

이 시대의 부인복은 양쪽에만 넓혀져 있던 스커트는 뒤에만 과장하는 Butsle형으로 되었다. 스커트는 앞을 넓게 트고 petticoat를 全面的으로 보이는 style이고 뒤를 부풀렸으나 스커트는 Hip 위에 걸어 올린 것과 같은 것도 있었다.²²⁾

또한 18세기의 부인복에는 각종의 Robe가 있었으며 그것들은 프랑스형과 폴란드형과 카라코라는 것이었다.(그림 11)

4. 近代의 服飾

1) 프랑스 혁명시대

불란서 혁명으로 諸國民은 자유와 평등을 깨달았다. 나폴레옹의 압제로 또한 국민적 自覺을 가졌다. 프랑스 혁명에 의한 정치, 경제의 변혁은 사상적으로도 커다란 변동을 주었고 종교개혁이후의 생긴 일이었다. 따라서 生活上의 변동도 현저했고 자유주의는 단연 정책의 朝野를 풍미했다. 야고뱅, 지로동 양당의 確執에 의한 공포정치도 순식간이었고 1799年 나폴레옹이 쿠데타에 성공하여 집정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러 독재적 권력을 휘둘러 그 처 조세핀의 기호도 곁들여 朝野는 프랑스 루네산스라고 칭하는 古代 Rome를 동경하는 古典에의 경향이 성해졌다 그러나 empire style시대도 불과 30年으로 세상은 재차 혁명의 불꽃에 태워져 프랑스에는 새로

21) 中田滿雄의 1人; 전게서, p.54.

22) 河緒實英; 전게서, p.69.

이 루이 필립 혹은 second Empire style이라는 형식이 건축 가구에 나타난 것이다. 19세기의 복식이 현대 복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Design의 기본이 되어있다는 것은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 수공업으로부터 기계공업으로 된 것에 기인한다.²³⁾

이 시대부터는 복식은 현대형이 된 것이다. 즉, 화려한 궁전 문화는 종말을 고하고 시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이 신시대의 봉화이고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한 삼색기의 사상은 프랑스로부터 전 유럽의 그리고 이윽고 전 인류의 이상의 상징으로서 확대해 간다.

혁명시는 공포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장은 일부러 좋지 않은 형태를 하고 평민답게 보이기 위하여 고심했다. 그러므로 남구의 복장은 정돈되어 있지 않고 무릎까지의 바지는 사라지고 보석이나 단추 등 일체 사치 허식을 배격하고 생활양식은 실용화 간단화되었다. 결국 중류계급의 복장이 기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동시에 직물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서 광택있는 비단이나 벨벳이 棉이나 가죽이 되고 레스·깃털 자수 등도 금지되었다. 또 1791年 이후 남녀의 기성복을 파는 상점이 파리의 도처에 생긴 일도 혁명후의 커다란 변화의 하나이다. 요컨대 대혁명의 참담한 피해 의한 여러 차례의 세례에 의해서 국민 복장은 점차 과거의 扮飾에서 실용적인 간편함에 옮길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혁명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간단화된 반동으로서 총재정부시대(1796~1799)에는 부드러운 비칠 것 같은 천이 사용되어 그리이스 로마 복장이 여자에게 사용됐다. 이것은 폼페이 발굴의 영향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 발굴로 인해서 18세기말의 사람 생활에 던진 영향은 실로 눈부신 것이었다. 부인들은 새로이 발굴된 폼페이 벽화의 여자가 엷은 의복을 걸친 것만으로 곡선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의 두꺼운 것으로 야한 찬란함에 불쾌감을 일으킨 것은 이윽고 이것에 닮은 유행을 만들게끔 된 것이다.

2) Empire시대(1804~1814)

엠페이어 스타일은 프랑스 혁명후의 나폴레옹

제정시대의 복식이라 혁명직후 한때 감소해진 복식은 이 시대가 되니 Greece Rome의 고전 취미를 채택한 스타일이 생겨난 화려한 시대가 됐으나 여자옷은 영국형의 간소한 것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부드러운 비칠 것 같은 백색이나 밝은 색 천이 유행했다. 즉 Waist line은 극히 상부 위치가 되고 칼라는 가슴을 드러낸 low-neck나 목을 조일 것 같은 high-neck의 것이 있었다. 소매는 짧게 어깨에 Puff를 달았다. 스커트는 타이트에 가까운 것이 많고 길이는 땅에 달랑달랑한 것이 보통이었다. 이것은 Rose Bertin이 파리로 오면서 영국 여자들이 입던 속치마에서 idea를 얻은 것이다. 또 캔즈(Cane-zou)라는 옷도 이 시대에 있었다. 길이가 짧고 높은 주름칼라를 첨부하고 있다 <그림 12 Empire시대> 캔즈는 영국형의 옷의 하나인 스펜서(spencer)가 변화한 것이다.²⁴⁾(그림 12)



3) Romantic style(1820~1848)

로맨틱 스타일의 시대는 부르봉(Bourbon)왕조의 復古시대중의 1820년경부터 루이필립까지의 시대이다.²⁵⁾

이 시대의 부인복에서는 corset를 버린 부인복이 재차 콜셀이 채용되어왔다. waist-line은 자연의 위치까지 내려 왔으나 가는 허리이고 스커트는 부풀어졌고 땅을 끌 정도로 길고 또 커지고 모자도 가지각색이어서 통일되지 않았다. 또 Jocker라는 어깨 바대를 가지는 옷이 있었다. 이 옷은 레스칼라를 올려서 둥근형의 소매를 단 것이나 앞치마식의 것을 늘어 뜨리고 소매를 Leg of mutton sleeve으로 한 것도 있다. 이 시대의 부인에게는 승마가 유행했으나 그 때문에 옷은 여유있는 긴 스커트와 양의 다리형의 소매(Leg of mutton sleeve)가 달린 옷옷이었다. 또 이 시대에는 Fashion Book이 처음으로 나타나 있다.

23) 中田滿雄 ; 전계서 p.60.

24) 河鱈實英 ; 전계서 p.78.

25) " ; 전계서 p.79.

4) Crinoline style(1850~1870)

1851년 후부터 여러 과학의 진보와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달 즉, 과학 염료미상의 발명, fashion Book의 보급, 고급 의상점의 창시 복장사 연구의 발흥 등 복장계에 직결된 혁신적 사건도 거의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부인복은 르네상스 이후 3번째의 허리테(杵)를 맞이하고 사상 최대의 넓음을 갖는 크리노린시대를 나타냈다.²⁶⁾

Crinoline style의 Crinoline이란 큰 스커트 밑에 착용한 under-skirt이다. 옛날의 Farthingale과 같고 말털과 麻의 混織을 몇장이나 겹쳐서 스커트를 부풀리는 수법의 것이었으나 무거웠기 때문에 새로운 Crinoline이 생겼다. 이것은 영국이 발명한 철사나



〈그림 13 Crinoline 시대〉

고래뼈의 輪(바퀴)을 몇단으로 하여 사용했다.²⁷⁾ 따라서 이것을 받침으로 한 Robe의 밑자락은 크게 넓어진다.

5) 19세기 후반의 복식(1870~1910)

1870년 이후의 프랑스 政體는 제삼공화제가 되어있다.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졌기 때문에 유행계를 이끌고 있던 지위는 잠깐 동안 잃어갔으나 복장에 종사하고 있었던 職人은 전멸하지 않고 소수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王이나 귀족이 流行源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인기있는 여배우나 dress maker의 Design이 유행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Dress-maker가 Season마다 새로운 style을 고안하여 유행을 리드해 가는 것이 되었으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대의 특색은 예술역사에 대해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style의 혼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²⁸⁾ 대체로 의복의 다양화와 자유화의 경향이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70년대에서 80년대 까지의 외형(silhouette)은 over-skirt를 허리에서 뒤로 당겨올린 Butsle형

이고 9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는 Butsle형은 자취를 감추고 세련된 S자형의 Silhouette으로 되어 20세기 초까지 계속됐다.

5. 현대의 복식

1914년 부터 1918년에 있었던 제 1차세계대전은 모든 생활양식과 복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따라 필연적으로 간소한 복장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본격적인 현대복장이 시작되었다. 남성과 여성 복장은 완전히 현대적 style로 정비되었다.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1945년에 종결되자 세계는 더욱 교통통신이 빨라지고 양복은 국제적인 복장이 되었다.²⁹⁾

이즈음 복장을 보기에 앞서 건축면에서는 콘크리트가 발명되는 등 전적인 혁신을 가져왔고 미술면에서는 현대는 종래의 전통을 깨뜨리고 美의 표현은 붓으로 하는 것보다 머리에 의한 해석방법에 있다는 상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혁신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복식계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받아 눈부실 정도로 새로운 Design이 계속 쏟아져 나와 발표된 것이다. 즉, 20세기는 史上 드물게 보는 복식 Design의 눈부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시대와 같이 발전하는 새로운 감각의 표현에 영향을 받아 Designer는 쓸데없는 장식을 버리고 크게 실용성을 고려하고 서로 다투어서 새로운 Form을 발견하고 前人이 밟지 않은 style을 만들어 내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그것은 1914년에 일어난 제 1차세계대전에 의해서 부인의 社會的 경제적 지위가 크게 변하고 공장 회사는 물론 군대에 까지 일하게 됨과 단발하고 남성의 복장을 취하여 쓰스(suits)로서 착용하게끔 되었다. 그런데 1945년에 2제차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에 Christian Dior은 New Look이라는 style을 발표했다. 특히 그 이후 온세계가 새로운 style의 발표를 注目하게 되었다. 지금의 세상은 원자 Energy시대가 되었다. style의 변천도 멈추는 일이 없이 계속 변천해 나갈 것이다.

Chambers(B.G.....A Fashion Manual, N.y.

26) 石山彰; 전계서, p.75.

27) 河鱈實英; 전계서, p.81.

28) " ; " , p.85.

29) 劉頌玉; 西洋服飾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p.243.

1946 p6)는 복장 유행이 변화하는 것은 첫째로 사회습관의 변혁 둘째로는 경제적인 제요인 셋째로는 심리적 요인 넷째로는 국가 내외의 제사건 등에 의해서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³⁰⁾ 또 부인복에서의 현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세말 이후 5세기 동안 부인복에 있어서 胴을 가늘게 하기 위한 corset에서 육체를 해방하여 자연스러움과 인간다움을 되찾는 일과 사지를 무거운 의복의 속박에서 벗어나 활동하기 쉬운 기능적인 것으로 합리화하는 일과 복장상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계급차나 성차의 편견을 없애는 일 또 번거로운 재봉사의 일에서 부인을 해방하고 인간적 자각을 높이는 일등이다.³¹⁾

이러한 현대화의 과정을 새삼스럽게 되돌아보며 과연 오늘날의 의생활은 어떠한가? 胴體도 완전히 해방되었고 허례허식적인 꾸밈에서도 초월하여 자기의 용모 및 체격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함은 이미 상식으로 되었다. 특히 용도별 기능복까지도 이미 오래전 이야기로 되고 있다. 또한 민주화로 인한 사회적 차별도 없어진지 오래며 누구나 자기 취향대로 材質과 색채 디자인 등 이미 자유화되었고 물론 여성도 남성의 바지 형태와 매우 흡사하게 앞트임이나 뒤 포켓 등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부인들이 재봉실에서 해방된 점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복뿐만 아니라 침구 등 일체 모든 것이 기성화되지 않은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파리에서의 Fashion정보 역시 교통통신과 Fashion Media의 발달로 즉시 알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또한 아동복과 성인복이 떨어져나간 시대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아동복의 디자인 역시 성인복에 못지 않게 발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 20세기 즉 2차대전 후 파리에서 발표된 Silhouette은 아래와 같다. ① 1945년 ; 전후에 세계를 풍미했던 실루엣으로 올라간 어깨, 허리는 가늘고 정상적인 위치이고 스커트는 짧막하고 전시중에 계속된 활동적인 hourglass silhouette스타일이 그대로 계승되어 있었다. 이 스타일은 Dior의 New Look의 출현에 의해 홀연

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② 1947년 ; Christian Dior의 New Look도 전후 스타일과는 정반대로 어깨는 과장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경사를 가져 처진 어깨, 스커트는 밑으로 퍼지고 20cm나 길어져서 온 세계를 떠들석하게 했다.

③ 1955년 ; Dior의 A라인(Line)으로 New Look의 대성공에 의해 Dior의 이름은 일약 높아지고 명실공히 Fashion계의 왕에 군림하고 그후의 mode경향을 지배한다. 이것은 Dior가 A라인이라고 이름지은 실루엣이고 허리(Waist)의 위치는 약간 높게 하여 꼭 끼지 않게 하고 스커트는 옷단에서 퍼지고 가슴을 작게 취급하여 실루엣이 알파벳의 A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불리운다. A이라인은 1966년이 되어 다시 출현한다.

④ 1958년 ; 슈미즈드레스(Chemise dress)이다. Waist Line을 조이지 않는 슈미즈드레스는 1925년에 롱드레스(long dress)로서 세계를 풍미한 이래의 등장이었다. 1957년에 발렌시아((valencia))가 발표한 후 이 경향이 섹크드레스(sack dress)라고 불리워 온 세계에 미친 것이 1958년이였다. 소매는 7부이고 스커트 길이는 짧은 편이다. 남성으로부터 평판이 나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섹크드레스(sack dress)는 모습을 감추었으나 허리를 조이지 않는 경향은 이 이후 오래 계속되었다.



<그림 14 ⑤ 1959년 ; 롱라인(long line) 20세기> 즉 스커트의 옷단이 벌어진 것은

그림자를 감추고 섹크드레스(sack dress)의 반동으로 다시 허리를 벨트(Belt)로 묶고 둥근 페플람(peplum)을 붙여 Hip를 강조한 style이다. 소매는 7부 스커트는 무릎을 가릴 정도로 짧다.

⑥ 1960년 ; 샤넬라인(chanel line)

제 1차세계대전 무렵부터 항상 Fashion계를 계속 이끌어 온 샤넬(Gabrielle chanel)부인이 1960년에 가디건(cardigan)식의 입기 편리한

30) 石山彰 ; 전계서, p.78.

31) " ; " , p.79 .

수우트(Suits)의 자켓(Jacket)을 발표했다. Neck line에서 겹치고 헴(Hem)에 단을 두르고 심플(Simple)한 네크라인, 가늘고 잘막한 소매, 짧고 가는 스커트 이것이 일약 세계 여성이 채용한 스타일이 되고 샤넬 수우트(Charrel suit)라고 불리고 현재도 더욱 계속 애용되는 실루엣이다.

⑦ 1964년 ; 시이스드레스(Sheath dress)

1963년 이후 실루엣은 가늘은 경향을 띠었다. 이 실루엣은 sheath line이라고 불리고 칼집과 같이 가늘게 처리되었다. Waist와 Hip의 약간의 여분만 가지고 있고 스커트는 짧고 짧다.

⑧ 1966년 ; 미니스커트(Mini skirt)이다.

전보다 스커트는 짧은 경향을 강조하고 무릎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나 1966년 봄이 되어 무릎 위 15cm라는 超短스커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반에게도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을 미니스커트라고 부르고 있다. 웨스트는 뚜렷하게 하지 않고 약간 나지막하게 취급한 것등 일정치 않다.³²⁾

⑨ 1970년 ; 팬츠룩(Pants Look)

미니스커트의 짧은 길이는 반동적으로 긴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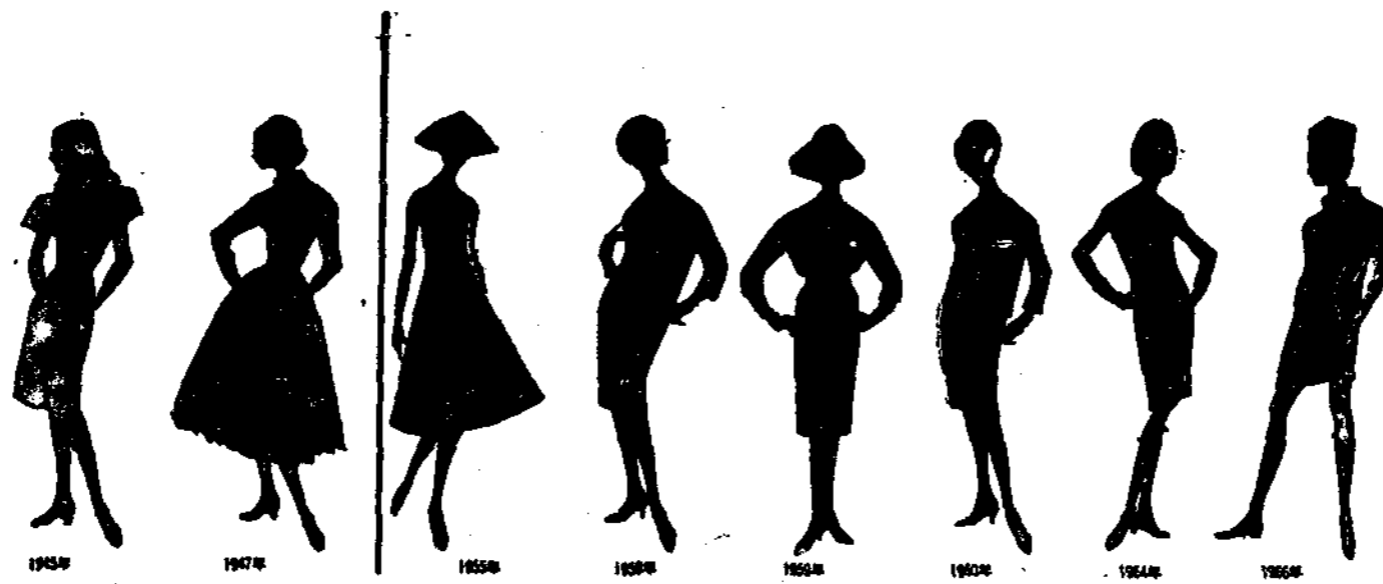
이의 맥시스타일(Maxi style)의 롱코우트(long coat)를 희구하게 되었으며 데이타임웨어(day time wear)로서 좀더 활동적이면서도 긴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팬츠스타일이 환영을 받게 되었다.

⑩ 1974년 ; 클래식스타일(classic style)

1970年代의 mode는 한마디로 정확히 어떤 스타일이라고 단정짓기 곤란하다. 세계의 모든 여건들이 多樣化, 多極化되어 가고 있으므로 의상의 스타일도 어느 특유의 일정한 形을 固守하지 못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된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도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은 復古風의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클래식스타일이다. 길이는 midi에서 maxi 사이이며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밀므로 내려간 가늘은 선에 유연한 맛을 풍기는 straight silhouette으로서 블라우징(blousing), 플리이츠(pleats), 바이어스 커트(bias cut)등의 流動的이며 부드러운 디테일(detail)이 代表的으로 등장하고 있다.³³⁾

⑪ 1976년 ;



<그림 15 전후 style>

금년도 파리 모드를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기능적인 것파, 둘째 풍성한 느낌일 것파, 셋째로는 부드러운 Silhouette일 것 등이다. 실루엣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난 season에 이은 스트레이트라인(straight-line) 즉 튜브실루엣(Tube silhouette)으로 上衣 부분은 풍성하며 스커트 아래로 내려오면서 몸(Body)에 붙는 형의 테이퍼드 실루엣(Tapered silhouette)이 등장하고 있다. 그외에 가장 큰 변화로는 스포츠웨어(Sport wear)가 시티웨어

(City wear)로 쓰여짐과 더불어 스포츠웨어와 니트웨어(Knit wear)가 Fashion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⁴⁾

여기에 최근 약 20년간의 변천을 표현했으나 전체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장된 점은 점차로 자취를 감추고 해마다 simple함을 강조해 가고 굵은 소매도 자취를 감추고 소매는 노슬리브(no-sleeve)나 약간 가늘고 긴 소매로 옮겨가고 칼라도 가능한 한 simple한 경향을 밟아가고 스커트는 드디어 전대미문의 미니스커트로 까지

32) 杉野芳子 ; 전게서, pp. 48~50.

33) 劉頌玉 ; 전게서, pp. 64~65.

34) I.W.S. 국제양모사무국 ; 팻손정보 760,007호 1976.

이르렀다가 점점 길어졌다.

V. 結 論

복식은 하나의 예술인 동시에 그 시대상의 반영이며 민족적 감정의 발로이다. 그래서 그 구성된 모든 부분들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타 부분과 상호 관계를 가지고 성립되고 있다.

특히 복식은 인체위에 입혀져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인체를 무시하고는 아무리 고가의 의상이라도 그 효과는 상실되는 것이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연 그대로 보다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복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기 신체의 Silhouette과 프로포손(proportion)을 알아야하며 또 자기는 어떤 Silhouette, 즉 어떤 Design이 어울려 자기의 단점을 보충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ilhouette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silhouette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조건인 변화성을 지닌 통일성, 또 통일성 속에 다양함의 법칙을 알아야 하나의 실루엣이 창조되는 것이다. 또 실루엣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질과의 관계도 모르면 안된다. 재질에 따라서 실루엣이 나타내는 표정과 개성이線과 부합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루엣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전체 실루엣을 Straight Silhouette, Bell Silhouette, Butsle Silhouette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의상나름대로 외각선이 그리는 형태의 주안점을 두고 여러 종류로 명명되고 있다.

또 질감의 입장에서 본다면 Tailored Silhouette과 Draped Silhouette으로 분류된다.

즉, 전자는 매우 엄격하고 형식적인 것이며 남자의 Tailored suits에서 가장 잘 알 수 있고 후자는 그리스(greece)의 chiton에서 우아한 주름과 인도의 sari는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실루엣의 변천은 복식의장의 변천과 같은 과정이며,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그 시대의 생활양식의 표

현으로서 그 변천은 고대에서 현대까지는 매우 복잡한 변화가 있으며 그 변화는 일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되풀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그 지역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추운 지방의 의복은 體形型으로서 四肢를 감싸는 형이라 할 수 있고 열대 지방의 의복은 腰帶型, 垂布型으로 피부를 노출시키는 형이다.³⁵⁾ 뿐만아니라 종교, 예술, 정치, 경제, 사상, 철학 등 사회事象의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서양의 의상은 古典時代의 卷衣(Drapery)形式에서 寬衣(Tunic)形式으로 되고 더우기 近世에 와서는 窄衣(Tight tunic)形式으로 移行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 한계점은 Gothic期이다. 즉, 오늘날과 비슷한 재단법이 當代에 생겼던 것이다.

다시 상세히 潮流를 말하려면 古代는 腰衣(Loin cloth)로 부터 卷衣로 변한 시대였었는데 中世로 되면 寬衣에서 窄衣로 넘어가는 過渡期로 났지만 近世 즉, 르네상스 이후 窄衣 발달의 시대로 되었다.

역시 各時期의 복식 內容은 古代 初期였던 Egypt 시대는 裸出的이었고 開放的이었으나 衣料는 얇은 것을 사용했다. 그러나 회람시대가 되면서 약간 衣服을 몸전체에 뒤집어 쓰는 것으로 되었고 褶襞의 美를 중요시 해왔다. 자연적으로 건강적인 服裝으로 되었다. 이 복장의 形態를 踏襲한 것은 Rome 시대였다. 로마 文化는 웅대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服飾도 또한 量大化 되고 형식화되었다.

古代는 German 민족의 大移動에 의해서 그 幕을 내린 것으로 되었으나 中世의 服裝은 北區風의 服裝과 東洋的 화려한 복장과 혼합된 Bzantine의 복장에서 시작되어 Romanesque 時代로 경유하여 Gothic 時代에 이르고 있다.

즉, 寬衣에서 窄衣로 移行하는 過渡期로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北區的과 Rome的과 혼합체로서 Rome風으로 확대되었으나 Gothic으로 되어서 北區風이 확립되어 近世를 맞이하게 되었다. Renaissance 文化는 Italy에서 시작되었으나 近世的 服飾 즉 穿衣가 발전한 것도 이태리풍이 처음이며 이윽고 독일풍, Spain풍, 화란풍이 생

35) 劉頌玉; 전게서, p.5.

기게 되었다. 다음으로 Baroque時代가 되어서 프랑스풍 즉, 宮廷貴族的 服飾이 성대히 되어 영국풍의 복식이 여기에 가해져 왔으나 1789年의 불란서 革命이후는 貴族的 복식은 開放되어 농민적 복식이 가해져 소위 文民的 복식의 꽃이 만개한 금일의 복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今後의 복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간소한 경향을 향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요컨대 간소하지만 예술적 색채가 가해진 smart한 것으로 移行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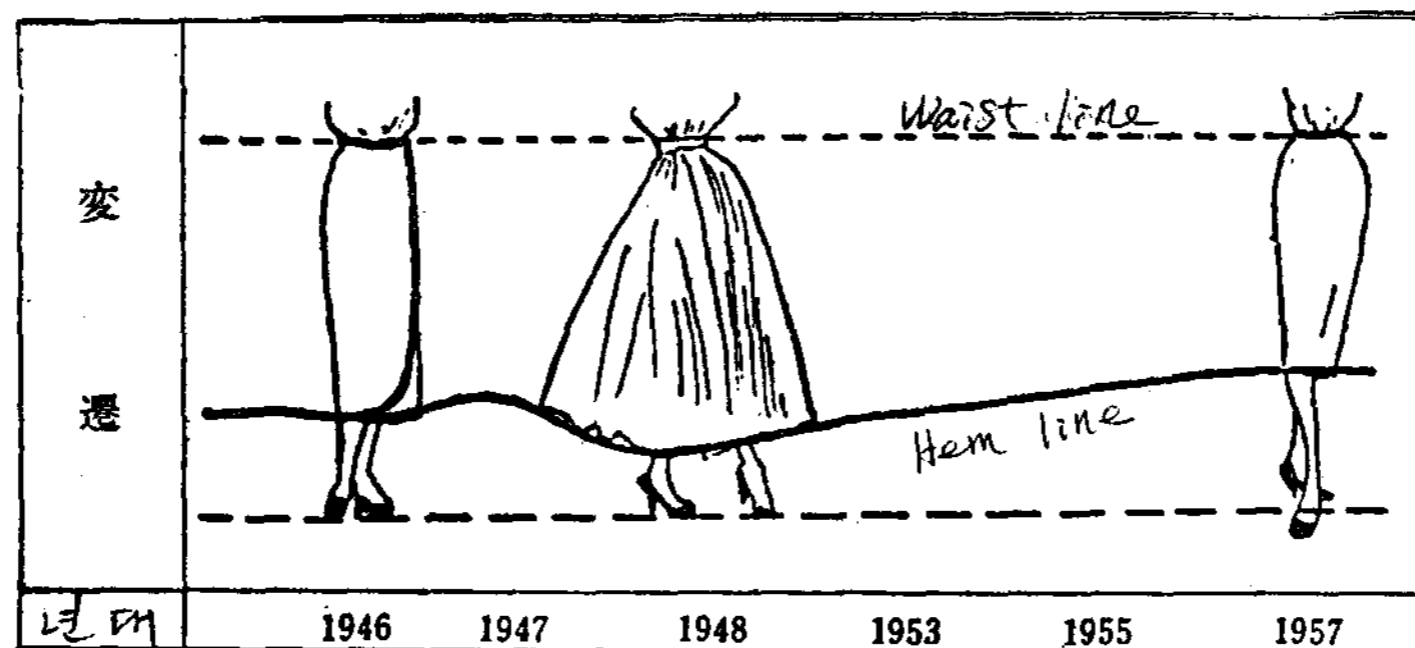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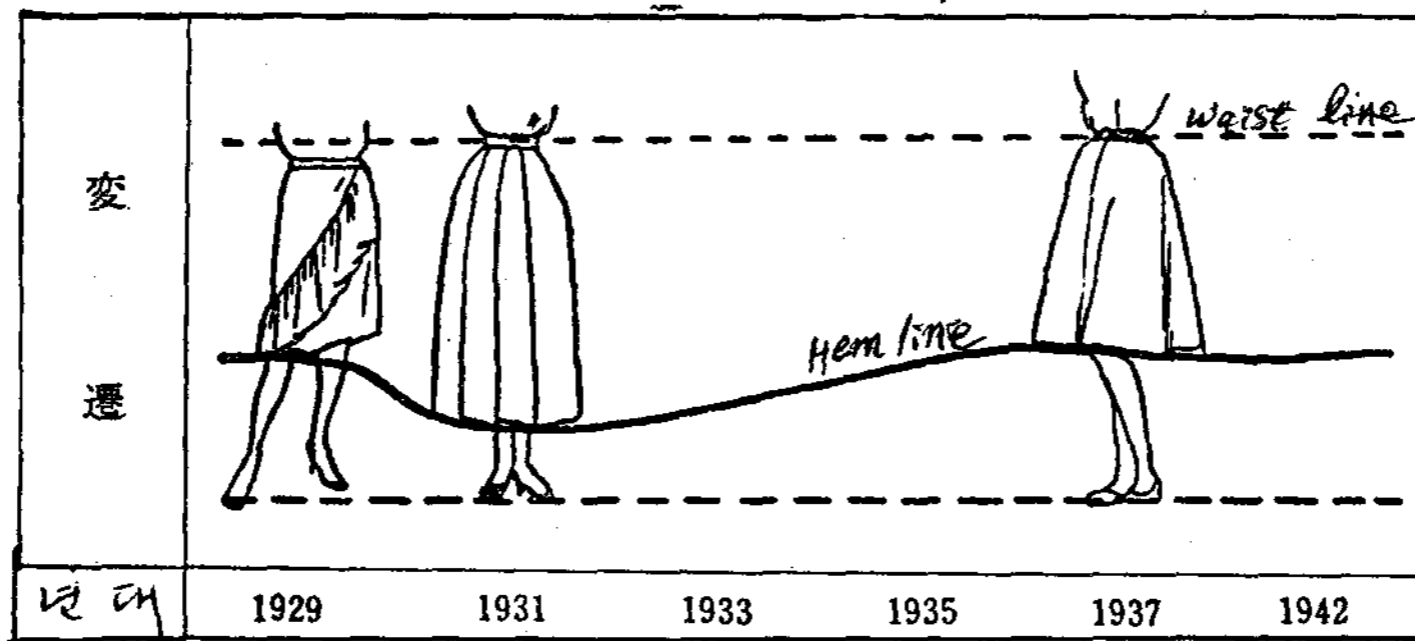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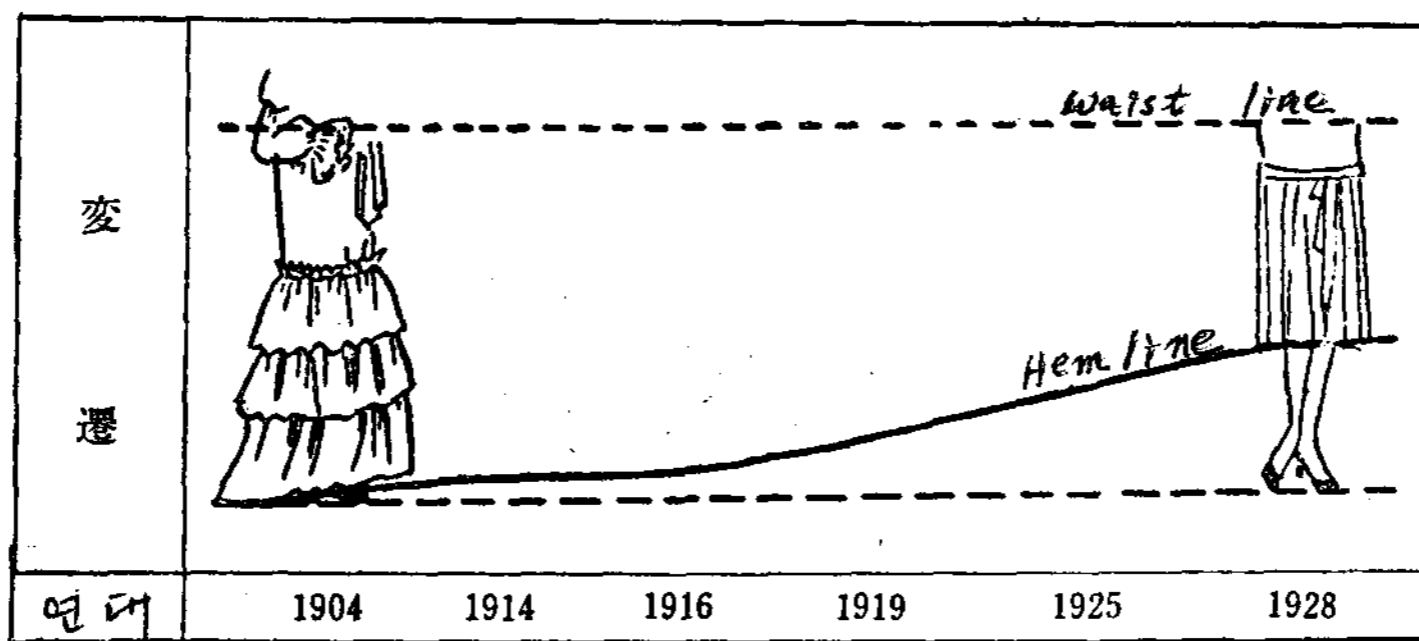


그림 16 Hem line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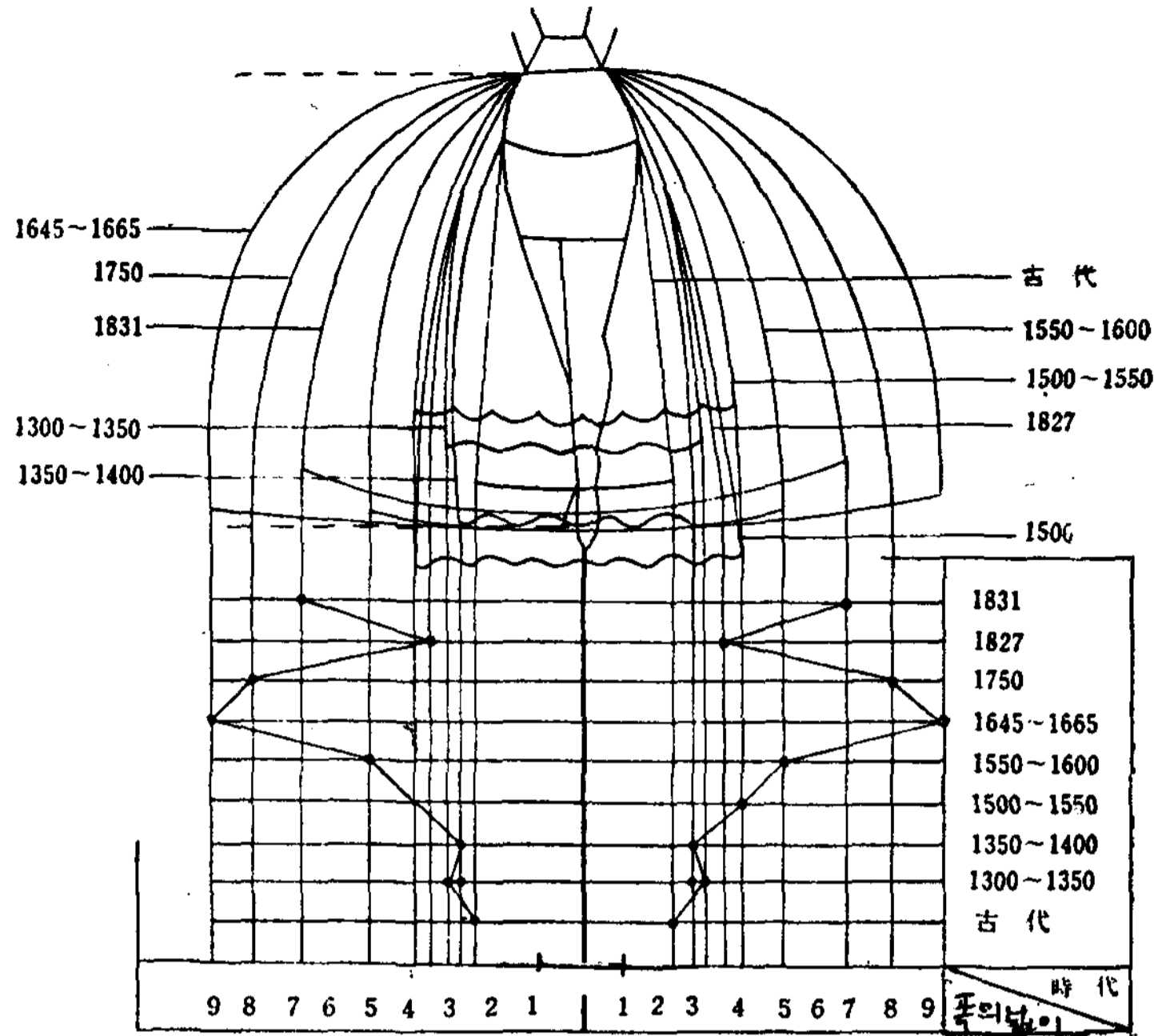


그림 17 out-line의 변천

圖 目 次

1. 그림 1 실루엣의 종류(服裝造形のためのデザイン에서)
2. 그림 2 Egypt시대 (The Mode in Costume에서)
3. 그림 3 Aegae시대 (")
4. 그림 4 Greece시대 (")
5. 그림 5 Rome시대 (")
6. 그림 6 Byzantine시대 (")
7. 그림 7 Romanesque시대 (服裝のうつりかわり에서)
8. 그림 8 Gothic시대 (The mode in Costume에서)
9. 그림 9 Renaissance시대 (")
10. 그림 10 Baroque시대 (Historic Costuming에서)
11. 그림 11-a Rococo시대 (西洋服飾發達史에서)
- 그림 11-b " (The mode in Costume에서)
- 그림 11-c " (")
- " 11-d " (")
12. 그림 12 Empire시대 (")
13. 그림 13 Crinoline시대 (")
14. 그림 14 20세기 (")
15. " 15 전후 style (服飾デザイン에서)
16. 보 록(西洋服飾美術史에서)

참 고 문 헌

1. 劉頌玉; 服飾意匠學, 서울 修學社, 1975.
2. " ; 西洋服飾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3. 李春熙; 西洋被服史, 서울 益文社, 1976.
4. 金惠全; "佛蘭西女子服飾에 關한 比較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3호, 1976.
5. I.W.S. 국제양모사무국, 팻손정보, 1976.
6.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古代中世編, 東京 光生館, 1958.
7.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 近世編, 東京 光生館, 1958.

8. 野村久康人斗 2; 世界服飾文化史辭典, 東京 東京堂出版, 1973.
9. 中田滿雄斗 1人 服裝のうつりかわり, 東京 有限會社, 1960.
10. 石山彰; 服飾意匠, 東京 光生館, 1969
11. 杉野芳子; 服飾デザイン, 東京 鎌倉書房, 1974.
12. 木曾山かね; 服裝造形のためのデザイン, 東京 同文書院, 1974.
13. 河鱒實英; 西洋服飾美術史, 東京 家政教育社, 1973.
14. ABRAMS; *20,000 years of fashion* Harryn. Abrams I.N.C., Publishers, New york.
15. Doreen yarwood; *English Costume*, London B.T. Batsford LTD, 1967.
16. Pistolese & Horsting; *History of fashion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London Sydne, Toronto, 1970.
17. Helen L. Broc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John Wiley & Sons Inc, N.Y. London Sdney, 1965.
18. Harriet T. Mcjimsey; *Art in Clothing Selection* Happer & Row Publishers N.Y. Evanston And London.
19. Grace Margaret Morton; *The Arts of Costume and Personal Apper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6.
20. Wilcox; *The Mode in Costume* Scribners 1958.

A Study on the Change of Silhouette

(Mainly on Women's Costume)

The new sense of costume is controlled by silhouette. The senses of the times is sensitively reflected in silhouette. For we can perceive the transition of the times through silhouette it is significant to know what course of changes the western costume, which almost became the international costume today, had been going through.

I began with the definition and condition of silhouette in this study of silhouette.

I took a general survey of silhouette studying various kinds of silhouett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material and silhouette. I sought the factors which cause the changes in costume and also studies the process of the changes

The process of the costume changes is studied by the order of ancient times, mediaeval times, modern ages and present days. I selected one representative silhouette of women's costume of each period. The drapery form of the ancient time's costume became the tunic form and the tunic form became the tight tunic form today. From this we can perceive that the Gothic period was the limitation of western costume. It means that the ancient times was the period of drapery, the mediaeval times was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tunic into tight tunic and the modern ages is the period of development of tight tunic.

In Egyptian period thin materials were used for costume which was worn in exposed style.

In Greek period the costume had the drapery style. The Roman's magnificent costume resembled the Greek's. The mediaeval costume was formed in Byzantium where the northern Europe style of costume was mixed with the gay oriental costume. The Romanesque and Gothic period followed the Byzantine period completing the mediaeval costume.

Tight tunic is developed in modern ages. Italian fashion of tight tunic was the first fashion of the modern ages. Germanic and spanish fashion came after it. As Baroque period opened the French royal costume became magnificent and added British fashion to it.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modern ages the royal fashion came to an end. Modern ages became people's period and the costume was simplified.

After the First world war designers and fashion books appeared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us the period of fashion industry came. For the designers in 20th century competed to create new designs, the fashion was changed year by year. The simplicity and practicality are not ignored in design, and the designers added more artistic sense to dresses.